

# 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09 October Vol.158

- 02 \_ 칼럼  
쇠고기에 이야기를 찾아준 이력제
- 04 \_ 기획특집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대대적 손질
- 06 \_ 전문가 심층정보  
육우고기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08 \_ 농가탐방 - 소  
제4회 충북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최우수상  
이경천 농가
- 09 \_ 농가탐방 - 돼지  
2008년 등급판정결과 돼지 부문 우수농가  
대진농장-이희철 농가
- 10 \_ 등급정보 - 소
- 15 \_ 등급정보 - 돼지
- 18 \_ 등급정보 - 닭고기
- 19 \_ 등급정보 - 계란
- 20 \_ 축산상식  
가금질병소독 7문7답
- 21 \_ 쇠고기 이력제 / 지역축산소식
- 23 \_ 등급판정소식 - 본부

## 칼럼



국립축산과학원 라승통 원장

# 쇠고기에 이야기를 찾아준 이력제

● 한국인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신화, 전설, 설화, 판소리 등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소중한 훌륭한 이야기들을 물려받았으며, 오늘날에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로 우리 이야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런 우리민족의 특성과 아주 잘 부합하는 제도가 쇠고기 이력제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자칫 공장식 대량생산 체제의 무뚝뚝한 상품으로 인식될 쇠고기에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안심을 주어 정감 있는 우리 농산품으로 다가가게 한다.

이론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보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케팅과 홍보에 의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소비자에게 경험적인 확신을 줌으로써 안심과 만족을 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그 품질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소비자



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며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 후 불과 3개월도 안돼 한우의 시장점유율이 15%정도 증가하였으며 산지가격이 30%나 급등한 사실이 쇠고기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였으며 소비자는 품질을 믿을 수만 있다면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연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에 의한 한우의 소비확대는 생산농가의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둔갑방지에 의해 정직한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그야말로 '윈-윈 효과'를 내고 있다.

기술적으로 쇠고기 이력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모든 가축에 번호를 부여하고 구별 가능한 수단을 장착하는 '개체식별체계'의 개발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러한 개체식별체계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통틀어 관리·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개체식별체계를 위반하는 사례를 찾아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동일성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여러 연구와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공조하여 시책건의와 기술이전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2000년에 이미 가축의 개체식별을 위한 전자칩 어표(RFID)를 개발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제표준에 적합한 가축개체식별코드들, 2007년에 소의 DNA동일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현재 쇠고기 이력제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로는 2001년부터 가축개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쇠고기 이력시스템과 연동하면 가축의 육종개량 연구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쇠고기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욱 완벽한 보안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러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육단계 DNA검사를 위한 조직채취를 귀표 장착시에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검귀표(Biopsy Tag)의 도입, DNA동일성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DNA칩의 개발, 개체인식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코드를 대체할 RFID시스템의 연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력제를 돼지 등 다른 축종에도 확대·도입하는 연구도 2010년부터 시작된다. 과학적 연구의 산물에 신뢰를 불어넣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성공사례가 되어가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처럼 앞으로 축산분야 연구개발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분야를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한국 축산업이 헤쳐가야 할 내·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